

“강연과 결합... 역사를 노래하는 앙상블 꿈꿔요”

역사를 예술로 전달 ‘가람휘락’
송태왕·이형기·윤은주·김정은
첫번째 공연...연말까지 6번 계획
성진기 교수 참여, 27일 공연



왼쪽부터 바리톤 이형기, 피아노 김정은, 소프라노 윤은주, 테너 송태왕.

역사를 노래하는 이들의 시선 끝에는 그리고 자 하는 세상이 담겨있다. 음이 내려갈 때마다, 혹은 올라갈 때마다 꼭 전 주먹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고 질긴 감은 눈을 땀을 때는 붉어진 눈을 마주할 수 있었다. 토해내듯 내뿜는 목소리는 머지않아 간절한 바람이 되어 흘러나왔고 동시에 시공간은 3·1운동이 발생했던 1919년 천안으로, 5·18이 발생했던 1980년 금남로 한복판으로 옮겨갔다.

역사적인 곡을 노래하는 그룹은 많지만 역사를 노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활동하는 그룹은 많지 않다. 역사를 예술로서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룹 ‘가람휘락(이하 가람휘락)’이 창단 5개월 만에 첫번째 공연을 개최했다.

‘가람휘락’의 ‘가을:음악에 불꽃다’ 무대가 지난 14일 남구 봉선동의 스페이스 모모에서 펼쳐졌다. 이날 무대에는 전일빌딩 245사업단 총감독을 맡은 테너 송태왕을 비롯해 바리톤 이형기, 소프라노 윤은주, 피아노 김정은이 섰다.

“역사를 노래해보자”는 뜻을 함께한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 ‘가람휘락’은 강을 의미하는 ‘가람’과 커다란 그릇을 의미하는 ‘휘’, 음악을 의미하는 ‘락(樂)’으로 ‘강물을 채울 만큼 큰 그릇’을 의미한다. 총 11명의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광주에서 아티스트, 영상 제작, 기획자로 활동해온 이들이다.

바리톤 이형기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무대는 가족의 따뜻함을 다룬 ‘마중’과 그리움을 넘어선 사랑을 노래하는 ‘연’, ‘얼굴’ 등 10곡을 노래했다. 테너 송태왕은 ‘얼굴’을 부르기 앞서 ‘문화발에 밟혔던 5·18 시민군의 얼굴이 떠오르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가람휘락의 무대는 세가지 색으로 나뉜다. 가람휘락 아티스트 자체 공연과 지역 오픈이던 리더

들의 역사적 코멘트 강연, 지역 신진 아티스트의 무대로 구성돼 있다.

후원처 없이 멤버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가람휘락이 출연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신진 아티스트를 무대에 세우는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들 창단의 목적이 ‘지역 신진 아티스트 발굴’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역 아티스트가 설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들어놓으면 아티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무대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람휘락이 앞장서서 선배로서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픈이던 리더 강연자로는 흥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초대됐다. 흥관장은 이날 공연장이 위치한 봉선동과 5·18의 공간적 역사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올해 5월 18일 공개된 ‘리멤버-5·18’에 이어 ‘대한민국 만세’가 처음으로 선보여졌다. ‘리멤버-5·18’은 1980년 당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 곁의 이웃들이었으며, 오늘날 5·18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피가 부족하면 현열에 나서고 다치면 숨겨주고 배고프면 주먹밥을 쥐어줬던 ‘살림’이었다고 말한다.

11월 중 정식 음원으로 등록되는 ‘대한독립 만세’는 3·1 운동 당시 태극기를 흔들며 숨을 거둔 애국지사를 삼천리 방방곡곡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에 빚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표현했다.

두곡에 모두 작사·작곡으로 참여한 조정훈 작곡가는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역사 속의 행위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곡을 만들고 싶었다”고 창작의 취지를 밝혔다.

연말까지 6번의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람휘락은 앞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광주시민을 위하여’라는 작사 경연 대회를 열고 대규모 무대를 꾸려 더 많은 이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27일 공연에서는 성진기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신진 아티스트로는 대학교 학생 4명이 함께한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두 명의 작가와 떠나는 여행이야기.
김넷과(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 13)가 두 명의 조각가를 초대해 여행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고양이·소녀와 떠나는 여행으로의 초대

최순임 초대전...29일까지 김넷과 지하 1층 갤러리



최순임 작가의 'BON VOYAGE' 모습

최순임 작가 초대전 ‘BON VOYAGE’가 오는 29일까지 김넷과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가 보여주는 작품의 주인공은 ‘고양이’다. 소녀와 고양이를 늘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최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전공인 조각 작품 대신, 다양한 고양이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양이, 소녀와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의 초대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모습과 표정은 다채롭다.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귀여운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작가는 고양이의 움직임을 적시에 포착해 작품으로 완성했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와 함께 광주 양림동 작업실 이름 ‘고양이 숲’에서 이름을 따온 포토세이

스타일의 드로잉집 ‘Little cat forest’을 함께 펴냈다. ‘세상 좁디 좁은 하지만, 우주만큼 거대한 나의 고양이 숲’이라는 부제가 담긴 책에는 작업실에서 3년간 작업한 일상과 씬 없는 드로잉을 담았다.

백종옥 미술생태연구소장은 그의 작품에 대해 “그의 예술적 상상력이 펼쳐놓은 세상에서 주인공은 여행자이고, 작가의 분신으로 여행자는 사랑과 자유와 환상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대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지금까지 2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국여류작가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양한 모습의 몽상가...서투른 여행자

조각가 위재한 초대전, 30일까지 김넷과

그의 손을 통해 탄생한 작품 주인공들은 늘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다. 때로는 바다를 향해하는 고래의 모습으로, 목을 길다랗게 늘이고 먼 곳을 응시하는 기린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조각가 위재한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김넷과에서 열린다. ‘몽(夢)-몽상가:서투른 여행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위 작가는 다양한 모습의 몽상가들을 소개한다.

이번 몽상가의 여행에서 눈에 띄는 건 과감한 색채다. 조각 작품을 캔버스 삼아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화려한 표현을 강조했다. 그의 작품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훨씬 흥미롭다. 작품 하나하나에 디테일과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웃음 짓고 있는 녹색 고래의 꼬리에 앉아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의 모습이나,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비행 준비하는 듯한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빛깔의 고깔모자는 호기심과 기대에 차 새로운 세계로 발길을 옮기는 여행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같은 든든한 의지처럼도 보인다.

정원에 놓인 작품도 눈길을 끈다. 계단 위에 위태롭게 한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커피숍 곳곳에 배치된 작품들은 마치 보물찾기하듯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작품 재료는 목직판 청동과 변용이 자유로운



‘몽상가’

FRP 등을 함께 썼다. 작가는 앞으로의 작업도 “내 안의 어른동화와 블랙미디의 해프닝을 계속 담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한 위 작가는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조각회, 21세기정신조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9일 라운드 테이블 ‘모닥모닥’ 개최

광주문화재단은 2023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공모제도의 주요 사안에 대해 타 지역 사례를 알아보고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라운드 테이블 ‘모닥모닥’을 개최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자리는 각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공모제도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공모제도 개선 방안 순서로 논의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은 사전에 전화접수를 하면 된다.

1부에 진행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원로-전문-신진예술

인’ 등 현재 생애주기별로 구분되는 지원 체계와 각 세부사업별 지원자격의 요건, 중복지원의 배제, 세부장르의 구분방식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2부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진행되며, 공연장상주단체의 협약 및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매해 공청회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다음해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모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일상의 탈출’ 시리즈. 수전 손택·소피 제르망·메르세데스 소사·이소사.(왼쪽부터)

그림 속 인물과 떠나는 인문학 강의

김용근 초대전 ‘사피엔스 카페’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강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많은 ‘인물’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함석헌, 오드리 헵번 처럼 익숙한 인물도 있고, 수학자 소피 제르망 등 아직은 낯선 사람도 있다. 신념을 갖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인물들은 한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무등현대미술관이 김용근 초대전 ‘사피엔스 카페’를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작가는 우리를 다시 성찰하게하고 여러 인물들을 소환해 어지러운 세상을 통찰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사피엔스 카페’를 열었다.

역사의 새지평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들을 소환한 전시는 만만치 않았던 그들의 삶을 한번쯤 탐색해 보기를 권한다. 또 전시에서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속에서 지구는 안녕한지, 전쟁의 위험 속에서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동강대 교수로 명예퇴직한 김용근 작가는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하지 않았다. 물리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그 내용들이 작품의 주제가 됐다.

전시 작가 초대에 까다로운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이 9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그를 초대한 이유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고정화되지 않

은 자유분방한 시선과 기법으로 작품을 풀어내기 때문”이고, “철학과 물리학적 관점 등이 어우러져 사고의 폭이 넓고 무한하기 때문”이다.

‘동일상의 탈출’ 시리즈는 인류 역사를 장악한 가부장적 사회에 반기를 들고 탈출을 시도했던 인물들을 담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쓴 수전 손택, 독재에 저항했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 동학농민운동의 여장부 이소사, 수학자 소피 제르망이다. 특히 작품을 살펴보면 인물들은 빗금이 쳐져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절반만 그려져 있는데 남성중심 사회에서 배제됐던 여성의 지위를 상징한다.

‘탈출과 도전, 우주인’ 연작에는 사피엔스의 상상을 통한 도전의 진화를 이뤄낸 인물을 등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는 의미로 우주복을 입혔다. 등장인물은 마릴린 먼로, 모나리자, 체 게바라, BTS 진 등이다.

또 ‘통찰의 힘, 철학자’ 시리즈에서는 ‘악의 평범성’의 한나 아렌트, ‘식민의 식민화’ 프란츠 파농, ‘미세 권력 푸코, 함석헌, 아도르노’ 등을 만난다.

8컷의 만화 형식을 차용한 작품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미소’는 각각 상반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건넨다.

김용근 작가는 “전시장에는 아는 인물도, 생소한 인물도 있는데, 그 인물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며 “그림과 철학, 음악이 어우러지는 예술인문놀이를 꿈꾸며 살아가자”고 말했다.

김 작가는 통섭공리공간 SUM(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뿐만 아니라 음악, 철학, 물리학 등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통찰의 힘, 철학자’ 시리즈. 푸코와 함석헌. (왼쪽부터)